

## 2015년 연구개발과제 제안 공모

- 철도 안전 및 건설 사업비 절감관련, 5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 -

연구원(원장 이종렬)은 국내 철도건설 기술력 향상을 위해 2015년도에 신규로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지난 30일부터 8월 말일까지 이메일(seong0122@kr.or.kr)을 통해 공모한다.

연구과제 공모대상은 ▲선진철도 기술수준 확보를 위한 철도기준 정비 ▲철도건설 현장 안전 강화 ▲철도건설 사업비 절감 ▲기술제품·부품 국산화 ▲철도 신제품 개발 등 철도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기술개발과제로 응모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접수된 과제는 지문위원회와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10월 초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과제는 공단에서 연구예산을 지원해 자체연구 또는 위탁 연구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매년 약 40억원에 달하는 R&D 투자를 통하여 주요철도건설 저체 국산화,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 기준정립 등 철도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연구개발과제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r.or.kr) KR소식 또는 공단 연구원(☎042-607-4072 4)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5년 신규 연구개발과제 제안 공모**

국내 철도건설 기술력 향상을 위해 신규로 수행 할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기간 : 2014년 5월 30일 ~ 8월 31일  
공모방법 : E-MAIL로 제안서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한국철도시설공단소식-KR소식-공지사항"의 안내를 참조

## 철도 건설사업관리시스템(CPMS),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시

- 영세 사업자의 개선의견 반영, 사용자 중심으로 탈바꿈 -

기획혁신본부는 정보시스템 환경에서 업무처리가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영세 협력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단이 운영 중인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이하 CPMS)'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개선해 5월 2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CPMS의 개선내용을 보면 협력업체의 문의빈도가 높은 온라인 대금청구와 공정관리 업무에 대해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대화식으로 질의하고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실시간으로 가이드해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CPMS는 사업의 공정, 사업비, 대금, 품질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협력사에게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서 사용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기업인 경우 인력부족으로 교육훈련이 어렵고 온라인 업무처리가 익숙하지 않아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본부 관계자는 "향후 사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친숙한 정보시스템으로 협력사에게 다가가 협력사와 동반성장의 기반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수인선 송도~인천간 4개 지하역사 신축 공사 발주

- 용현역, 남부역, 국제여객터미널역, 인천역 내년 12월 개통 예정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수원 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 중 2015년 12월 개통 예정인 송도 인천구간의 4개 지하역사(용현, 남부, 국제여객터미널, 인천)의 건축공사를 지난 5월 발주 후 7월부터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축하는 4개 역사는 총 5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내년 12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화재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이용객 피난안전선 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이용객의 안전과 공기질 향상과 냉난방 효율을 위해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예정이다.

본부는 건설중인 수원 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2년 6월 오이도 송도구간을 우선 개통했고 송도 인천구간은 2015년말, 수원 한대 구간은 2017년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조순형 건축설비처장은 "내년 12월 수인선 송도 인천구간이 개통되면 안전선과의 환승뿐 아니라 경인선의 지상 인천역과 수인선의 지하 인천역간 지하환승통로로 바로 환승이 가능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개선과 지역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남본부, '14년도 상반기 부산지역 실무협의회 시행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5월 26일 영남본부 7층 상황실에서 부산 지역 철도산업 발전을 위하여 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실무협의회를 시행했다.

이번 협의회의에서는 공단 2건, 공사 6건의 총 8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공단의 해당건은 동해남부선 운행선 변경 및 개통사업에 대한 시간안으로 공단의 부산경남본부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 공사의 해당건 중 철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5건은 공단 영남본부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소용민원으로 이미 공단에서 처리된 시간이었다.

실무협의회는 2011년 공단 영남본부와 공사 대구본부 및 부산경남본부 각 협약을 맺어 철도 안전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철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을 통해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공단·공사 상호간의 신뢰 형성 및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시행중에 있다.

(영남본부 김기훈 기자)



## 전라선 등 4개 철도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 착수

- 터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가능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전라선 등 4개 터널에 대한 터널방재 시설 설치공사를 오는 9월에 착공해 2016년 준공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대상 : 전라선 솔치터널(L=6,128m), 임실터널(L=4,655m), 병풍터널(L=5,671) 3개소, 호남선 목포터널(L=2,360) 등 4개 터널.

이번 사업은 운행 중인 열차가 터널내부에서 화재 및 긴급사고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공사로 총예산 100억원이 소요되며 올하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터널 내 대피로, 방재구난지역, 유도등, 비상전화 및 소화기 등 방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방재시설 설치로 터널 내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과 승무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철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충청본부 재난대응 합동 모의훈련 시행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5월 30일 조치양에서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재난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본부는 지진으로 굴삭기가 전도되어 고속열차와 충돌하는 가상 상황을 훈련 배경으로 설정하고 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대전동부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초동조치,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응급복구 및 재난발생시 협력체계구축 등의 훈련을 전개했다.

노 본부장은 "이번 훈련의 목적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에 대비해 개인인무를 구체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결과를 분석해 초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본부 강철문 기자)



## 강원본부, 안전에는 한 치의 양보 없어!

- 자체 점검 결과, 절차 미준수 시공사 및 감리단 적발 -

강원본부(본부장 김영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원주~강릉 철도건설 구간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시행결과, 공사절차를 미준수한 한 시공사(현대건설)와 감리단(동명기술공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한 내용을 보면 ▲원주~강릉 8공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인근에 위치한 매산터널(연장 610m) 굴착과정에서 일부 구간에 선형유리가 발생(총길이 123m, 최소 1cm~최대 86cm오차 발생)해 시공사 및 감리단이 원설계대로 보수·보강하여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본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에 대해 책임자 교체 등 강력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본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공단 내부 품질연구소 및 외부 기관인민터널학회에 의뢰해 터널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 7년째 푸른사랑의 숲 가꾸기 봉사활동

기획혁신본부와 시설사업본부는 지난 26일 'KR과 지역주민 함께하기 운동' 실천의 일환으로 임직원 40명이 참여하는 '신탄진 산림공원 숲 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본부는 2007년부터 산림청과 '신탄진 지역 산림공원 가꾸기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숲 가꾸기 사업'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원화단 및 산책로의 잡초제거와 오물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시행했으며 쉼터, 길의자 및 알뜰한 보수 등의 편의시설 점검·보수 활동도 펼쳤다.

봉사활동 관계자는 "지역 주민 생활주변을 정비해 쾌적한 자연공간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합쳐가 되어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외에도 동구 평암동 '아름다운 가게'에서 기부물품 판매지원 행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